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우수상 (현대불교신문사장상)

배장환 (서울대 3학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네요. 저도 이제 훌쩍 커버려 어엿한 대학생이 되고, 벌써 졸업이 눈앞에 보입니다. 하지만 여태껏 아버지께 편지 한 통 못 써드린 것이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나마 편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아버지!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와 여기 서울은 첫 눈도 내렸답니다. 전화로는 자주 안부 여쭙지만 잘 계신지요? 그래도 부산은 여기보다 조금 더 따뜻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아버지 회갑이신데도 저는 시험이다 뭐다해서 찾아가 볼지도 못하고... 아버지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며 방학 때 내려오면 된다고 그러셨지요. 아버지 많이 보고 싶네요. 제가 갑작스레 이런 글을 보내드려서 놀라지는 않으셨겠지요?

제가 대학에 발을 디딘지가 엊그제 같은데 3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에 들어와서 꼭 불교학살에 몸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많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좋은 경험들도 쌓고, 여름 겨울 방학 때마다 가는 수련대회를 통해 느낀 바도 많이 이렇게 아버지께 글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 번의 수련대회를 갔었는데 그 중에서 지난 여름 수련대회가 저에게는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니다. 1주일 간 진행되는 수련대회에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루에 10시간씩 하며, 저는 이제까지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깨버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수련대회에서 느꼈던 점들을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스님을 만나기 전, 그 이후에도 저는 제

자신이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다고, 잘 낫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대학에 입학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살아가는 동안 저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은 저로 하여금 더욱 더 자

행을 하면 할 수록, 부처님 공부하면 할 수록 저의 문제점이 더욱 불거져 나오게 됩니다. 스님께서는 수행을 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지레 겁이 납니다. '과연 수행을 하면 나아질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해야하나?' 점점 회의감

한 치의 미동도 없이 꽂꽂혀 앉아계신 부처님을 관세음보살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정근 시간 내내 스님의 말씀이 머리 속을 맴돕니다. 저의 문제점이 모두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아서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스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왜 이러한 문제를 낳았는지 부처님 법의 성격에 꼭 들어맞게 설명해 주십니다.

정근을 하다보면 여러 생각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어렸을 적 아버지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갑니다. 분명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의우고 있고, 두 손에는 목탁이 들려있지만 아버지의 모습만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내가 저 때 아버지께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신합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나는 왜 아버지의 행동을 한 쪽으로만 보고 받아들이려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서서히 아버지의 좋은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나에게도 적용되는구나' 하는 사실이 마냥 신기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자기 자신에

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이십니다. '과연 아버지의 모습이 있을까?' 일부러 끼워 맞추려고 이것저것 찾아보지 말고 보지 않게 됩니다. 수련대회가 하루하루 지날 수록 목숨은 점점 잠깐만 가고, 몸도 마음도 축 처져 갑니다. 정근이 시작되고 저는 법당 왼쪽 벽에 모셔진 지장보살 탱화 앞에 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생각이 또 떠오릅니다. 고등학교 때 럭비를 하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아버지의 고등학교 때 모습이 그려집니다. 건강하신 아버지는 럭비 유니폼을 입고 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멋져 보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럭비와 비슷한 운동인 미식축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아버지의 젊은 모습에 겹쳐집니다. 순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였던 것과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나옵니다.

<계속>

아버지 <상>



그림·문병성

수련대회서 매일 10시간씩 관음정근

아버지의 좋은면 보이면서 눈물 '주르룩'

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불교학살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록, 수련대회에 참가할수록 제가 많은 문제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두 개, 세 개, 네 개... 점점 불어납니다. 수

이 듭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사~일!' 이렇게 높은 소리로 열불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야 하나?', '할 일도 많은데 여기에 무엇하러 왔나?' 하는 생각이 '내 편에는 열심히 한다고 목도 쉬어서 말을 할 수도 없을 지경인데 열심히 안한 다니!' 힘이 쭉~욱 빠집니다. 또 다시 정근 시간이 돌아오고 저는 탈레탈레 법당으로 향합니다.

또 다시 제 문제점을 지적 받습니다. 정근을 할 때 회전을 다하지 않는다는 점,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점, '내 편에는 열심히 한다고 목도 쉬어서 말을 할 수도 없을 지경인데 열심히 안한 다니!' 힘이 쭉~욱 빠집니다. 또 다시 정근 시간이 돌아오고 저는 탈레탈레 법당으로 향합니다.

리퀘스트 수행일기 <下>



강경숙 경북대학교 교사

밖으로 내달리고 상대에 끄달리던 여러 마음이 쉬어 내 안에 고요함이 충만할 때마다 든든함을 느낀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무심(無心)의 세계도 단순해질 수록 쫓아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는 마음을 낮추는 하심(下心)을 연습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선원에서 배운 실상관법(實像觀法)을 하니, 그 안에 나를 낮추는 것도 들어 있고 모든 일에 결림 없이 즉시즉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공덕도 함께 하는 이것이 바로 내 북그릇이 아닌가 싶다. 비록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낮추려 하고, 내린 그 마음을 유지하고 쉬며, 편한 그 마음에 안주하려는 욕망이 들고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밝음을 향한 과정이고 세상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다스리기 어렵고 지니기 어려운 공부지만 선원 문을 나설 때면 '오늘 들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무작정 잠을 쫓아가며 했던 마음공부, 복을 지어아 한다는 강박관념은 나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여 뜻이 맞지 않으면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직설적이고 명령조의 말과 표정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진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언제 그런 시절

도반들 따뜻한 배려에 '참사람 모습' 느껴 묵인 마음 푸는게 바른 수행...행복한 결론

고 본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내려놓고 가라'는 말씀은 기껏 배운 것을 버리라는 것 같아 섭섭하게 여겨졌지만 '법에 도달하지 않고 살아라'는 진정한 해탈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공부야 나에게서 그리워하는 마음의 악이고 매듭이었다.

그리고 우곡선원에 나오면서 감동 받은 것은 도반들의 따뜻한 마음이다. 경전 강의를 맡아하던 선배 도반에게 경전의 해석이 잘못된 부분을 다른 도반이 지적하자 더 없이 감사히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이것이 참사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지지를 받으려 너무도 가슴 아파했던 내가 온 몸으로 느끼고 배우게 된 부분들이다. 우곡선원에서 실시하는 교사들을 위한 심성개발 직무연수나 참선교육을 받으려 온 청소년들을 위한 소임자 및 도반들의 헌신과 진심어린 모습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나의 교만은 선원 도반들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해 소외되어 허물어졌다.

눈앞은 스승과 자비심 충만한 도반들에 둘러싸여 공부마저 저절로 되어 가는 것이라 생각할 때면 나는 세상에서

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활은 안정되어 있다. 아이들이 시험을 치거나 학교나 학원에서 귀가가 늦을 때 걱정하던 습관은 마음을 비운만큼 복이 자리한다는 법문을 듣고 그냥 그 순간에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 그로 인한 편안함에 만법(萬法)은 필요에 따라 갖다 쓰는 자의 몫이라는 가르침이 절절히 피부에 와 닿는다. 이처럼 부처님의 법은 요요하고 무궁무진한 세계여서 어디서나 막힌 곳이 없고 무엇에나 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얻은 결론은 간단하다. 묵인 마음을 풀고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 바른 수행이며 부처공부라는 것이다. 마음공부가 이런 과정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 간다면 심성개발 직무연수나 참선교육을 받으려 온 청소년들을 위한 소임자 및 도반들의 헌신과 진심어린 모습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나의 교만은 선원 도반들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해 소외되어 허물어졌다. 눈앞은 스승과 자비심 충만한 도반들에 둘러싸여 공부마저 저절로 되어 가는 것이라 생각할 때면 나는 세상에서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 품어두었던 감동있는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문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hy@buddhapia.com

새해, 불자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가족!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불자의 가족사랑

정녕 어떻게 하여야 나의 가족이 살아나고 평화와 행복과 성취를 누릴 수 있는가? 여기 부처님께서 깨우쳐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올리는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진정한 사랑, 이것이 합하여지는데 늙아내리지 못할 업애이 어디에 있으며 성취 못할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 (주요목차)
I. 자녀 사랑의 길
1. 자녀 사랑의 길
① 집착부터 비워라
② 불교의 자녀 사랑법
③ 자녀를 위한 기도법
II. 부모사랑 · 부부사랑
1. 부모사랑 · 부부사랑
① 효도로 부모사랑을
② 원만한 부부사랑의 길

감히 청하옵나니, 이 책을 통하여 가족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과 나, 그리고 우리의 주위가 차츰 불국토로 변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보왕상매론 강의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불자들이 즐겨 독송하는 '보왕상매론'은 병고해탈, 고난퇴치, 마음공부와 마장극복, 일의 성취, 참사랑의 원리, 인연 다스리기, 공덕 쌓는 법, 이익과 부귀, 억울함의 승화 등 누구나 인생 살이에서 겪게 되는 장애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왕상매론 강의』를 통하여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를 터득하시고, 복덕과 향상의 길로 한발 한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자의 기본예절

일타르스님 지음 / 값 3,500원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목욕 · 입욕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오계이야기

일타르스님 / 값 3,500원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살생 · 투도 · 사음 · 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한 법문집.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명한 불자의 필독서입니다.

유행과 인과응보 이야기

일타르스님 / 값 5,000원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 개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알려주고자 총 49가지 이야기로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유행과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공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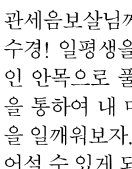
일타르스님 / 값 5,000원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고승들의 감명깊고 배운 깊은 글 총 45편의 법문을 모아 일타르스님의 뛰어난 한문솜씨로 글의 의미를 정확히 살려 이해하기 쉽게 엮었습니다.

천수경 천수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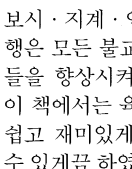
해국스님 지음 / 값 5,000원



관세음보살님께서 우주의 대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일평생을 참선정진에 몰두하신 해국스님이 선적인 안목으로 풀이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엮었다. 이 책을 통하여 내 마음의 문을 넓게 열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워주소. 나를 향상시키는 깨달음의 길로 능히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심층의 소원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보시 · 지계 · 인욕 · 경진 · 신정 · 반야의 육바라밀 수행은 모든 불교신행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으며, 불자들이 향상이기 위한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이 책에서는 육바라밀의 실천방법 뿐만 아니라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서술하여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 값 5,000원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예불문의 뜻과 함께 삼보 · 부처님 · 보살 · 10대 제자 · 16성 · 오백성 · 제대성중 등의 연보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 값 7,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조인(初人)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무엇을 믿고 어떠한 삶의 길을 걸을 것인가 참된 불자의 살림살이는 무엇인가

불자의 살림살이



'불자의 살림살이'는 스스로를 살리고 주위를 살리는 삶을 살면서 행복과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쓴 글입니다. 아울러 행복을 얻는 원리, 가족

사랑의 원리, 기도성취의 원리, 불자들이 꼭 알고 새겨야 할 삶의 원리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참불자가 되고 불성을 개발하는 법에 대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

<차례>

- I 부처님을 믿는 불자 II 불자의 정 · 부처님의 정
III 복을 기구하며 사는 불자 IV 불자의 길 · 불자의 삶
V 평온과 지혜가 깃든 삶

우륵스님 지음 / 4×6판 / 값 3,500원